

“한국불교 미래상 제시에 역점”

창립 5주년 맞는 선우도량 대표 도법 스님

바람직한 수행자상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스님. 승단에 대한 투철한 문제의식과 책임감으로 당당하게 비판할 줄 아는 스님. 지난 5년간 승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선우도량의 창립 5주년에 즈음해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심없는 고민으로 선우도량을 이끌어온 도법스님을 만났다.

현재 실상사 주지소임을 맡아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스님은 한국불교

이분들은 모두 종단의 공인입니다. 따라서 공인에 맞는 공적 사고와 책임감,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종회도 종권과 상호 이해득실 보다는 한국불교의 전체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선우도량이 지난해 조계종 개혁을 이끌어 내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동안 선우도량이



수요 인터뷰

선종가람으로서의 위상복원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종단없는 종단 개혁 필요

—선우도량이 14일 창립 5주년을 맞습니다. 선우도량의 산파역을 맡았고 오늘까지 대표직을 수행해 오셨는데 선우도량의 위상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제가 평가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긴 하지만... 선우도량이 고민해온 분

약력

- 1949년 제주도 한림출생
- 1969년 월주스님을 은사로 출가
- 1984년 금산사 회암학림 주학
- 1990년 선우도량 삼일대표
- 현 선우도량 공동대표 및 실상사 주지

“승가상 정립·불교사 바로쓰기 등 할일 산적” 실상산문 오늘의 수행근본 가람으로 복원 과제

제는 선우도량만의 고민이 아닌 우리 자신과 교단의 문제였습니다. 선우도량은 이런 문제를 불교적·수행적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기성세대와 젊은세대와의 가교역할을 시도해 왔습니다. 솔직히 여타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불교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그 방향을 모색해 온 것도 사실이구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바람직한 승가상 정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스님께서는 지난 8차 수련결사에서도 종단의 종단없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개혁종단이 출범한지 1년이 된 지금 현 종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종단이 걸어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요.

▲지난해 마련된 종헌정본이 현실에 맞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어요. 특히 사찰운영이나 재정공개, 분담금 현실화 등의 문제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종단의 모든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총무원과 종회, 본·말사 주지스님들의 의식개혁입니다.

종단의적인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회를 떠난 종교는 생각할 수 없어요. 다만 사회참여는 교단이 자기사상에 투철하고 그래서 사회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며 설득력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여건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교단이 안정되고 모든 여건이 좋아지면 당연히 사회문제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한시적 기구인 승가교육개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스님께서 추진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승가교육개혁위원회의 승단내에서의 활동방향과 바람직한 승가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승가교육개혁위원회는 기초·기본교육의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요. 또한 상설도량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행자교육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방과 중앙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전국에 화림개설을 위한 토대를 다질 생각입니다. 승려교육은 현시대의 사상과 정신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전인적 인격형성이야말로 승려교육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지요.

—실상사에 전문교육기관인 화엄학림

이 개원했습니다. 화엄학림의 개원이 교단에서 갖는 의미와 역할 그리고 또 다른 학림개원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찰마다 독특한 가풍을

▲화엄학림은 하나의 경전을 전문적으로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종단내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대적 세계관의 이론정립을 통해 한국불교의 다양성과 개성을 살리는 단초가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학림은 여러곳에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통도사의 경우 계율전문학림이나 송광사의 경우 선이륙학림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이렇게 각 지역 사찰마다 독특한 가풍을 형성하고 전통을 이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창립 5주년 기념법회에서는 한국불교 근현대사연구회의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 근현대사> 출판 기념회도 함께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근현대사연구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출판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한국불교는 조선조 5백년과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왜곡돼 왔어요. 한국불교 근현대사연구회는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 부정적인 면은 극복하고 긍정적인 면은 발전시켜 나가면서 불교 역사를 바로잡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 근현대사>도 이런 측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초역할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책은 조계종이 자기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실상사 주지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실상사가 복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실상사가 선우도량의 근본도량만큼 우선 실상사 백장암을 중심으로 한 한국불교 선원모델과 화엄학림을 통한 경전연구 및 수행모델을 창출하는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물론 지역민과 교민도 함께 하는 가교역할도 할 것이구요. 또 9산선문의 최초 가람인만큼 초기 선종가람의 면모를 복원해 국민의 정신적 의지처로 만들 계획입니다.

한명우 기자



하재웅 <대구교사불자회장> · 노



나는 할머니의 대를 이어 지성으로 절에 다니신 어머니와 엄격한 유가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런 아버지였으나 일년에 너댓번 어머니의 불공길엔 일꾼들을 시켜 공양물을 저다주는 배려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보니 어쩌다 어머니 따라 절에 가는 날이면 해방감을 만끽하게 되고, 그 녀석하고 따사로운 분위기가 어린 내 마음에 깊이 자리잡게 되었나 보다.

그러던 차에 광복이 되고 그 혼란기에 불화평을 따라 영주방 순흥에 이사를 했는데 그 마을에는 빨치산의 등쌀에 산속에서 피난온 석문사란 절이 터를 잡게되어 가끔 그 절에 가서 노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 그때 절에서 배운 찬불가를 집에서 부르다가 아버지께 호되게 혼이리를 맞은 적도 있다. 아마 아버지는 절이란 남녀자들이나 가는 곳으로 생각하셨나 보다.

이렇게 유 소년기를 보낸 후 안동에서 사범학교를 다니던 때 서약사란 절에서 1년여 동안 하숙을 하면서 생활한 적이 있다. 이때

을 했다. 대구시로 전근을 한 이듬해인 1982년 2월 매일신문 한구석에 조그맣게 실린 '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 주최 제13회 불교기초과정강좌'가 개최된다는 기사가 내게는 1년 머릿기사보다 더 크게 확대되어 다가왔다. 참으로 기막힌 발견이었다. 진실한 의미에서의 나의 불교인문은 이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나의 불교는 인습에 의한 막연한 믿음이었다면 이때부터의 나의 불교는 보리심을 향한 바른 믿음과 이해와 실천이 같이 하는 수행이었기 때문이다.

열일 제치고 당시 강의장이었던 대성예식장을 찾았다. 짐수를 마치고 난생 처음 이기영 박사의 불교개론 강의를 들었다. 첫시간

아내 전도 역효과 ‘어쩔 수 없는 불자’ 확인 대구 구도회 기초교리 수강 재발심 계기

에 서울 조계사에 본부를 둔 불미녀 학생회와 인연이 닿아 안동사범학교에 처음으로 불교 학생회를 조직하고 학교 근처 대원사에서 법회를 가졌으나 그 당시는 지방의 열악한 여건으로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교직에 나가 10년 가까이 특별히 불교와 접할 기회도 없이 지내다가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와 만나 결혼에 이르렀다.



부터 매료되기 시작한 나는 일주일간의 강좌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 없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사찰에서 정기적인 대종법회가 일반화되었지만 '한국불교연구원'이 발족할 당시는 아주 드문 일이었다. 특히 1주 일간의 기간동안 일반 시민을 위한 기초과정강좌는 거의 찾아 볼수 없는 상

황에서 구도회의 기초강좌는 참으로 인기있는 법석이었다. 강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니 대구구도회의 정기 야외법회를 현충 유가사와 도성암에서 개최한다는 염서가 왔다. 그때 유가사에는 서운스님이 주석하고 계셨는데 '초전법륜'에 대한 법문을 인상깊게 들었고, 도성암 좋은 터에서 입장을 하며 구도인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구도회에 입문하여 기쁜 마음으로 1년간을 따라다니다 보니 연말 총회에서 내게 일 반부의 총무라는 소임이 맡겨졌다. 당황도 하고 사양도 해봤지만 열심히 심부름을 했다. 88년부터는 6년간 회장직을 맡아 수행하다가, 94년 2월에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지금은 평회원으로 참여하면서 대구·경북지역 선생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이렇게 구도회에 몸담고 10여년을 생활하다보니 생각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대중불교는 울지못한 것을 가리내는데 그치지 않고 비웃음을 더욱 크게 퍼는 일을 함께 합니다.

월간 대중불교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제)대원정사

**<대중불교>를 만나고서야 나는 마침내
말씀의 꿈틀이는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공은소리
불기의 잣대는 언제나 무척님 마음입니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대중불교>는 그 잣대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시사, 쇠소리, 귀담아듣고 새겨볼 이야기, 연중기획, 특별기획...

깊은 풀이
해석이 없는 결론은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옛것을 옛것으로 놔두지 않고 현실로 끌어와 오늘을 움직이게 합니다.
수행칼럼, 세계의 선지식, 에세이 보살불교, 불교교리 산책, 법담이야기, 불교와 민속,
법과 문화, 폐사지를 찾아서...

넓은 만남
경전이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곧장 부처를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불교방송교재 경전강의, 교리강좌, 불교 영어 한마디

대중불교
정기구독문의: 전화(02)773-5731, 752-7047, 754-1614
팩시밀리(02)771-6796

밀교학의 근원과 최신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밀교학 입문서

밀교, 그 위대한 가르침을 읽는다

B.뱃따짜리아 지음
장익 옮김

밀교의 근원, 특히 인도교 탄트라와 불교 탄트라를 비교분석해 놓은 밀교학 입문서이다.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을 인도교대문화와 결부시켜 상세히 언급하고 특히 인도교와의 상호연관성에 관하여 상세히 분석해 놓은 원저자 이후 최근까지 30여 년의 연구성에 따른 학계의 다양한 학설을 계 실어 20세기 이후 밀교학 연구의 진척과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인도의 일상생활과 풍습 및 관습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문화이며 인간의 정신적 완성과 심적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인 밀교,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과 인도의 고대문화, 그 정신세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신국판/ 284면/ 값 6,000원

최신간 中論頌研究 ●김인덕 지음/ 양장/ 376면/ 값 12,000원

불교출판부 서울 서초구 석촌동 160-1 전화 420-3200, 3300 / 팩시밀리 420-3400